

2024학년도
1학기
가톨릭관동대학교

춘계 학술논문 발표자료집 - 전라북도 -

2024년 3월 27일 (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동학농민운동 - 황룡촌 전투를 중심으로

강현우 (역사교육과 2학년)

-목 차-

I. 서 론

II. 본 론

- 1) 황룡촌 전투의 배경
 - (1) 1차 동학농민 운동
 - (2) 황토현 전투
- 2) 황룡촌 전투의 전개과정
 - (1) 농민군의 전략
- 3) 황룡촌 전투의 결과와 그 이후
 - (1) 외세의 개입

III. 결 론

I. 서론

장성 황룡촌 전투는 전라도 장성군 일대에서 벌어진 동학농민군과 관군의 전투이다. 장성 황룡촌 전투는 농민군과 정식훈련을 받은 정규군인 경군이 최초¹⁾로 접전을 벌인 곳이었으며, 이 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함으로써 농민전쟁의 전개과정에서 또 다른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전투로 인해서 농민군들의 사기는 크게 올라가게 되었고, 앞으로 벌어질 1차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에서의 상황은 농민군들에게 매우 유리하게 돌아갔다. 또한 이 전투는 전봉준과 황룡촌에서 맞선 이학승 둘의 전술싸움, 즉 두뇌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전투이며 특히 전봉준의 천재적인 전술, 면모가 들어난 전투였다. 이후 이 전투는 농민군들이 전주성 점령을 성공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결국 조정과 화약을 맺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이 글에서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에는 단 한줄이거나 거의 나오지 않는 황룡촌 전투, 그러나 사실 전술싸움의 향연이었던,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황룡촌 전투를 자세하게 다룸으로써 이 전투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결과와 의의를 자세하게 탐구하기로 했다.

II. 본 론

1. 황룡촌 전투의 배경

1) 제 1차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혁명(東學農民革命)은 고종 31년인 1894년 동학세력²⁾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민란이다. 동학농민혁명을 달리하면 '동학농민운동', '동학농민전쟁', '갑오농민전쟁 동학란(東學亂)', '동학민란'으로도 불린다. 당시 최제우가 창시한 동학의 개념은 동학은 인본주의(人本主義)를 기반으로 인간 평등과 사회 개혁을 주장하여 사회의 변화를 갈망했던 민중의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동학은 민중들에게 새로운 사회의 전망을 제시해 주며, 성리학의 지배이념에 대항하는 민중의 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동학은 지배체제를 옹호하고 있던 성리학과는 달리 당시 사회의 구조와 질서를 부정하는 혁명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가난한 농민들은 조선 말기 세도정치와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학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다. 즉 동학농민운동은 국가와 부패한 관리들에 대한 대중적인 불신, 농민들의 분노로 인해 발생한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³⁾.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은 보은 집회부터이다. 보은 집회는 남접⁴⁾과 북접 즉 동학의 분파 모두가

1) 농민군은 황토현에서 전주감영군과 전투를 해 본 적은 있으나, 조선 최정예부대와 싸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2) 현 천도교의 전신

3) 19세기 후반 지배층의 수탈과 외세의 경제 침탈에 시달리던 농민들 사이에서 동학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빠르게 퍼져 나갔다. 1894년 지배층의 폭정에 항거하여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라는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독립기념관 공식 소개글

참가하여 그 규모가 매우 컸다. 그만큼 집회는 매우 혼란스러웠으며 보은 출신의 어윤중이 선무사⁵⁾로 파견되어서 말려야 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집회에 전봉준도 참여했다. 3월 11⁶⁾일자에 나온 보은 집회의 1차 통유문은 교조 신원과 사회 개혁을 위주로 하여 작성되었으나, 3월 16일에 2차로 나온 통유문은 척양척왜(斥洋斥倭)와 보국안민(輔國安民)을 앞에 내세웠다. 또한 보은에서 집회가 끝난 후에도 정치적으로 열성적이었던 몇몇 이들은 전라도 금구에서 집회를 또 벌였는데, 굳이 전라도 금구에서 집회를 벌인 이유는 전라도 지역의 백성들이 수탈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옛부터 전라도는 곡창 지대였는데 이러한 지리적, 경제적 이점으로 인하여 전라도민들은 지속적인 수탈의 대상이었다. 당시 전라 고부⁷⁾ 군수 조병갑은 그중에서도 악랄한 탐관오리였는데 그야말로 가렴주구⁸⁾를 일삼았다. 유명한 예로 그는 만석보라는 대형 저수지를 축조한 후 이에 사용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인근 태인 군수를 지냈던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겠다며 양민들로부터 엄청난 조세와 잡세를 걷고 양민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역을 부여하는 등 여러 횡포를 부렸고 또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떠밀어 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등 조병갑에 대한 전라도 백성들의 증오와 원성이 자자했다.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고부 고을의 백성들은 전봉준의 아버지인 전창혁을 대표로 삼아 탄원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나, 돌아오는 것은 곤장뿐이었다. 이로 인해 전창혁은 불구가 되어 돌아왔고, 보름이 채 안되어 장독⁹⁾이 올라 죽고 말았다. 이에 분노한 그의 아들 전봉준은 봉기를 계획하게 되었고, 당시의 봉기군의 계획은 '고부 관아를 점령하고 조병갑을 처형한다.' 뿐만 아니라 '전주성을 점령하고 한양으로 상경한다.' 까지 매우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작전을 실행했는데 이 계획은 사발통문¹⁰⁾으로 지금까지도 유명하게 알려져 있다.

2)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을 꼽자면 바로 황토현 전투라고 할 수 있다. 황토현 전투는 1894년 4월 6일 오후부터 시작되었다.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군은 최소 4천여 명이었다. 감영군¹¹⁾은 무남영의 정예 병력 3백여 명을 포함하여 도합 2천여 명이었다. 4시경에 첫 접전이 이루어졌다. 첫 접전은 일종의 탐색전이었는데 농민군은 짐짓 패한 척하며 황토현에서 후퇴하여 남쪽의 시루봉 자락으로 진을 돌렸다. 감영군이 이를 추격하여 황토현에 이르렀을 무렵 날이 저물고 더 이상의 진격이

4) 동학의 분파 중 하나로 북접과 남접은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5) 조선시대에 재해나 병란이 일어난 지역에 민심을 무마하고 주민을 진제(賑濟)하기 위해 국왕이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

6)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상(국사편찬위원회, 1959)

7) 지금은 정읍시의 일부

8) 세금(稅金)을 가혹(苛酷)하게 거두어들이고, 무리(無理)하게 재물(財物)을 빼앗음.

9) 태형으로 인한 체력 약화와 상처가 감염되어 생기는 병

10) 1. 고부성과 고부 관아를 쳐부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한다.

2. 무기고와 무기창을 점령하고 군수에게 빌붙어 백성들을 괴롭힌 탐관오리들을 처단한다.

3. 전주 감영을 함락하고 곧바로 한양으로 직행한다.

11) 감영에 소속된 군사, 감사(관찰사)가 있는 관청을 감영이라고 한다.

불가능하게 되자 이곳에서 숙영을 했다. 감영군은 이 일대의 지리를 전혀 알지 못했고 때마침 비가 그치지 얼마되지 않아 안개마저 자욱했다. 농민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한 감영군은 소를 잡고 술까지 마셔가며 한가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이러한 대처 상황에서 때를 기다리던 농민군은 4월 7일 새벽 4시경에 무방비 상태에 있던 관군의 진영을 일시에 기습¹²⁾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황토현 전투에서의 승리는 제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첫 전투에서 관군을 물리쳐 농민군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봉기를 관망하던 일반 농민들이 봉기의 대열에 가담하는 계기가 되었다.

2. 황룡촌 전투

농민군들은 황토현 전투를 포함 영광, 함평, 무안을 거쳐 장성에 이르는 동안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였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정에서는 홍계훈¹³⁾을 양호초토사로 삼은 후 난을 진압하도록 했다. 물론 홍계훈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이 그는 한성을 지키던 장위영의 신식 병력과 강화도의 신병들을 규합한 정예부대인 경군 1,000명 중 약 800명의 병력을 만들었고 이 중에는 청나라의 용병 10여명도 있었다. 인천 제물포를 통하여 출발한 홍계훈의 경군은 서해를 돌아 전라도 군산에 상륙한 후 금구를 거쳐 남하했다. 농민군은 전주 감영군과 싸우며 어느 정도 정규군과 전투를 한 경험은 쌓았지만 신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조선 최정예부대와 싸우는 것은 처음이었다. 경군은 외국에서 수입해 온 쿠르프식 야포, 회선포¹⁴⁾, 모제르식 소총 등의 최신장비로 강력한 무장을 하고 있었다. 농민군은 전투를 하며 지방군들의 무기들을 노획하여 처음보다 무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이 무기들은 경군의 신식무기에 비하면 화력,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재래식 무기에 불과했다. 4월 5일 홍계훈의 부대가 전주성에 입성했다. 화력에서 열세인 동학군은 원래 계획하였던 전주성 공략을 뒤로 미룬 후에 관군을 피해 남쪽으로 퇴각하였다. 그 후 정읍, 고창, 흥덕 등 여러 지방을 장악하며 전봉준은 관군의 전력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그리고는 동학군에게 전면전을 피하고 부대를 나누어 복상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관군은 4월 18일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홍계훈의 경군이 4월 5일 전주성에 입성한 것을 생각하면 꽤 천천히 움직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홍계훈은 동학군을 과소평가하고 시간을 두어 여유롭게 진군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데 하지만 전봉준의 동학군은 이미 관군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관군의 진격을 피해 장성까지 복상했다. 장성에 도착한 동학군은 삼봉에 진을 쳤다. 그러나 홍계훈도 동학군의 움직임

12) 적은 삼면을 포위하고 서쪽 한 방향만 열어 놓고 함성을 지르며 압박하자 관군은 일시에 무너졌다. 이 때 적은 영병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과 보부상으로 붉은 도장을 찍은 것을 등에 붙인 사람들만 끝까지 따라잡아 어금니를 악물고 칼을 휘두르는 품이 마치 사적인 원수를 갚듯이 하였다. 패잔병들은 물을 보고 뛰어 들었지만 물이 깊고 진흙은 질어 허우적거리다 내리치는 창·칼에 맞아 피가 땅을 적시고 눈물을 붉게 물들였다. <오하기문> 80쪽

13) 조선시대 후기의 무관으로 후에 을미사변 당시 일본군을 막다가 전사한다.

14) 개틀링 기관총을 당시 조선군이 부르던 말

을 파악하였고 그는 자신이 동학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것을 알게되었다. 홍계훈은 농민군의 작전을 타파하기 위해 즉시 이학승¹⁵⁾에게 친군심영 병력 300명을 주어 장성으로 진격하게 했다. 4월 21일 농민군이 장성 월평촌에 진을 친 이틀 후인 4월 23일 장성에 도착한 홍계훈은 대관 이학승, 원세록, 오건영에게 농민군의 상황을 살피도록 하였다. 선봉 이학승은 황룡강가에 집결하여 장터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농민군을 선제포격함으로써 전투를 시작했는데 이는 매우 좋은 판단이었다. 이로 인해 농민군측은 수십명의 사상자를 내게되었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속에서 농민군은 곧바로 삼봉에 올라가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전봉준은 포격이 시작된 후 고지로 올라가 학익진을 펼치라 명령한 후 관군의 움직임을 살폈는데 그가 생각한 수에 비하여 관군의 수는 불과 수백명 뿐으로 얼마되지 않았고 후방에 지원 부대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전봉준은 충분히 싸워 이길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문제는 경군의 신식무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였다.

2) 농민군의 전략

농민군들은 경군의 신식무기인 기관총과 소총탄들을 막아야 했다. 이들을 막지 못하면 재래식 무기를 든 농민군들은 전투가 아닌 학살당할 위기에 처했다. 고민 끝에 전봉준은 손재주가 있는 농민들을 불러모아 방어용 무기를 제작하였다. 그 방어용 무기란 다름아닌 장태였다. 장태는 대나무를 쪼개 원형으로 이어붙인 것으로, 원래 병아리를 기르기 위한 일종의 등지같은 것이었다. 즉 이동식 방어막 같은 구조물이었다. 농민군들은 장태에 솜, 짚단 등을 채워넣고 낫과 칼을 꽂아 위에서 아래로 경군을 향해 굴렸다. 당황한 관군들은 총과 포를 위를 향해 쏘며 진격했지만 관군이 쏘는 총탄은 전부 장태에 박혔다. 또한 굴러오는 장태에 박혀있는 날붙이 때문에 경군은 큰 피해를 입었을뿐더러 장태 안에다 짚을 넣어서 불을 붙인 뒤 수백 개를 경군 쪽으로 굴러 피해를 줌과 동시에 화력을 모두 소모시키고 그 뒤에 농민군들이 따라 붙어 경군에 접근하면서 공격했다. <<오하기문>>에서는 장태를 이렇게 묘사한다.

적은 위에서 아래로 관군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잠시 후 홀연히 커다란 대나무로 만든 통을 밀고 나왔는데, 둥그스름한 닭의 집과 비슷한 것이 수십 개였다.

밖으로 창과 칼이 삐죽하게 꼽은 것이 고슴도치 같았고 아래에는 두 개의 바퀴를 달아 미끄러지듯 아래로 내려왔다.

관군은 총탄과 화살, 돌을 쏘았지만 모두 대나무 통에 차단되어 버렸다.

적은 대나무 통 뒤에서 총을 쏘며 따라오다가 고함을 지르며 뛰어 들었다.

초토군의 진영은 멀리서 뻗히 바라보면서 도와주지 못한 채, 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도록 방임하였다.¹⁶⁾

15) 홍계훈(洪啓薰)의 지휘 아래 장위영대관(衛領官隊官)으로 소속 부대를 이끌던 장군

16) <<오하기문>>, 90쪽.

신식 무기가 무력화되자, 수적으로 열세인 심영병들은 강을 건너 후퇴하기 시작했다. 동학군은 이들을 뒤쫓아 반격했다. 경군은 영광쪽으로 길을 따라 퇴각하면서 신촌리 뒷산 까치골 능선에서 농민군과 마지막 접전을 벌였다. 이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벌였던 경군 대관 이학승이 전사¹⁷⁾했다. 이학승의 입장에서는 사람 수는 많지만 보급과 화력이 부족한 전봉준의 농민군을 상대로 방어적 입장을 펼치며 시간을 끌며 농민군을 지치게 해야했으나 자신의 군대의 신식무기만을 믿고 계속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이 패착이 되었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은 대관 이학승과 다수의 경군을 죽이고 대포 1문, 쿠르프식 기관포와 회전식 기관포 각 1문, 그리고 양총 다수를 노획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반면, 경군은 대관의 전사로 전의를 완전히 상실하여 영광쪽으로 도망쳤다. 평소 경군들에게 오합지졸의 무리로 인식되어 왔던 농민군은 이제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용맹성을 직접 체험하면서 경군의 사기는 더욱 저하되었다.

3. 황룡촌 전투의 결과와 그 이후

황룡촌에서 경군 대관 이학승을 뉘이고 대승한 농민군은 사기가 충천하여 기수를 전라감영이 있는 전주로 돌렸다. 갈재를 넘어 정읍, 태인, 금구, 원평을 내달았다. 농민군에게는 오로지 '이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는 보국안민의 의지와 확신이 있을 뿐이었다.

4월 24일 장성을 출발한 농민군은 정읍을 거쳐 태인에서 하룻밤을 머문 다음 25일 원평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때마침 관군을 위로하기 위해 내탕금 일만냥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온 선전관¹⁸⁾ 이주호와 수행원 두 명을 체포했다. 이에 앞서 왕의 윤음을 가지고 왔다가 장성에서 붙잡힌 초토영 종사관 이학승, 배은환 등과 함께 이들을 원평 장터에서 참수¹⁹⁾했다. 다음날인 26일 농민군은 경군이 뒤쫓아 북상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내 전주부를 향해 진격했다. 농민군은 원평에서 금구현아가 있는 금구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른쪽으로 길을 꺾었다. 농민군은 큰 길을 택하지 않고 다소 험하지만 지름길인 독배재²⁰⁾를 넘어 전주성의 코앞인 삼천에 도착하여 26일 밤을 보냈다. 이후 1만여 명의 농민군은 전봉준 대장의 지휘 아래 전주성 공략에 나섰다. 용머리 고개를 중심으로 진을 편 농민군은 성내외의 동정을 살피다 마침내 정오 무렵부터 전주성 공격을 개시했다. 이 날²¹⁾은 마침 성의 서문 밖에 장이서는 날이었다. 농

17) 당시 전라도 장성 월평에 전사한 장위영 대관 이학승을 기념하는 순의비가 서있다.

18) 조선시대 형명(形名), 계라(啓螺), 시위(侍衛), 전명(傳命) 및 부신(符信)의 출납을 맡았던 관직.

19) <양호초토등록>(《동학란기록》상), 172쪽

20) 김제시 금산면과 전주 완산구 사이에 있는 고개.

21) 동학군은 장판들과 함께 섞여 이미 수천명이 시장 속에 들어와 있었다. 때가 오시쯤에 이르자 장터 건너편 용머리 고개에서 일성의 대포소리가 터져 나오며 수천방의 총소리가 일시에 장판을 뒤덮자 장

민군은 동문을 제외한 서·남·북문에서 공격했으며 장성전투에서 노획한 대환포로 서문을 깨뜨렸다. 곧 성문이 열렸고 전봉준²²⁾은 전라감사의 집무실인 선화당을 접수했다.

1)외세의 개입

전봉준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에 의해 전주성이 함락되자 당황한 조정에서는 완산에 진을 치고 있던 흥계훈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수습하고 병력을 보강하기 시작했고 5월 초에 전주성을 공격하여 8일만에 탈환하였다. 또한 초기 관군이 무너지고 전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에, 조선 조정은 크게 동요하여 자국군의 역량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청나라에게 동학군을 진압할 군대를 파병해달라고 요청²³⁾하였다. 심지어 직접 고종²⁴⁾이 청에게 군사를 파병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선정부가 4월 29일 청군의 파견을 요청하는 조회문을 청국에 보내자 이를 기다리고 있던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5월 2일 즉시 910명의 병력을 출발시키고, 뒤이어 1,500명의 병력을 출동시켰다. 이에 5월 5~7일에 걸쳐 2,500명의 청군이 충청도 아산만에 상륙²⁵⁾하였다. 그런데 텐진 조약²⁶⁾을 명분으로 들며 5월 6일 전격적으로 일본군이 제물포²⁷⁾에 상륙한다. 따라서 전봉준은 이러한 상황을 크게 신경 쓸 수 밖에 없었고 청군의 파병을 크게 의식하는 것으로 모자라 청,일 양국에 의한 국제적인 분쟁을 막기 위해서 휴전을 제의하게 되고 결국 전주화약을 맺으며 제 1차 농민봉기는 막을 내리게 된다.

Ⅲ.결 론

5월 7일 ‘전주화약’이 비공식적으로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흥계훈은 농민군의 안전을 보장하는 물침표²⁸⁾를 발급하였고 농민군은 5월 8일 전주성을 관군에게 비워주고 ‘귀화’라는 형식적 이름 하에 자진해산하였다.

제1차 동학농민전쟁은 ‘전주화약’이 이루어지고 농민군들이 일단 전주성에서 나와 해산하였으므로 막을 내렸다. 비록 농민군이 당초의 목표대로 서울로 직향하여 중앙 권력을 변혁시키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관군을 격파하고 정부가 파견한 경군까지 곤

꾼들이 정신을 잃고 뒤죽박죽되어 서문과 남문으로 물밀듯이 들어가는 바람에 동학군들은 이들과 섞여 문안으로 들어서며 함성을 내지르고 총질을 했다. 서문에서 파수보던 병정들은 도망질하기에 바빴다. 순식간에 성안에도 동학군 소리요, 성밖에도 또한 동학군의 소리다. 전대장은 유유히 대군을 거느리고 서문으로 들어와 선화당에 자리하니... 《동학사》, 123쪽.

22) 《동학사》, 123~124쪽

23) 김명섭, 제1차 갑오농민전쟁기의 차병론과 경장론 1994, page 7,

24) “임오년과 갑신년에 폐국에서 두 차례 내란이 일어났을 때 모두 중국의 병사들이 대신 평정해 주었습니다. 아울러 청컨대 귀 총리가 조속히 적절하게 조력할 방안을 강구하여 급박한 형세를 구원하기를 절실하게 기다립니다”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9』

25) 신용하, <갑오농민전쟁 시기 집강소의 설치>(《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163쪽.

26) “일본은 조선에 대해 청과 동일한 파병권을 갖는다”

27) 동학농민운동은 오늘날의 전북 지방에서 일어난 봉기이므로 이를 진압하려면 남부 지방에 병력을 보내야 하고, 실제로 청군은 아산만에 병력을 보냈는데 일본군은 엉뚱한 제물포(지금의 인천)에 군을 상륙시킨다. 이는 농민군 진압은 안중에도 없고 후에 일어날 사건인 한성 장악이 우선이었다는 강력한 반증이 된다.

28) 통행을 허가하는 표로, 농민군과 관군 양쪽에서 모두 발행했다. 이 표는 신분을 보장하는 징표이다.

경에 몰아 넣어 ‘폐정개혁’의 약속까지 받아냈다는 것은 어찌됐든 농민군으로서는 눈부신 성과임에 틀림없었다. 이는 과거의 민란에서 국지적으로 고립되어 안핵사에 의해 주모자가 체포되어 효수되고 민란군이 해산되는 것을 반복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진전이였다. 이런 점에서 전주화약은 성공적인 쾌거로 평가되고 있는 제1차 동학농민운동의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전주화약을 성공적으로 맺을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에는 전주성 점령이 있었고 전주성 점령을 위해 절실했던 전투가 바로 황룡촌 전투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말했듯 본 연구자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는 한 줄 또는 아예 나오지 않는 황룡촌 전투가 당시 제1차 동학농민운동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전투였는지, 또한 전투에서 이루어진 전술싸움이 얼마나 치열하였으며 양 진영간 어떤 전술이 오갔는지 탐구해보았다. 그 결과 황룡촌 전투는 제 1차 동학농민운동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투라고 결론지을 수 있었고 이런 황룡촌 전투를 탐구함으로써 더욱이 교과서 상에 알려지지 않고 있는 주요한 사건들을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참고문헌

I. 서적 및 논문

1. 《동학농민혁명사일지》
2. 「宗理院史附東學史」
3. 황현, 《梧下記聞》
4. 『동학란기록(東學亂記錄)』 상(국사편찬위원회, 1959)
5. 김명섭, 제1차 갑오농민전쟁기의 차병론과 경장론 1994 page 7,
6. 신용하, <갑오농민전쟁 시기 집강소의 설치> (《동학과 갑오농민전쟁연구》, 일조각, 1993)
7. 성강현. "동학농민군의 전주성 점령과 전주화약에 관한 고찰." 동학학보 0.51 (2019)

II. 사이트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mobile>

동학농민운동, 혁명인가? 봉기인가?

박성호 (역사교육과 3학년)

- 목 차 -

I. 머리말

II. 동학, 동학농민군의 성격

- 1) 반외세 및 반봉건에 대한 태도
- 2) 동·서양 혁명과 봉기 사례 비교

III. 동학농민운동, 용어 검토

- 1) 봉기와 혁명의 개념
- 2) 동학농민운동의 용어 타당성

IV. 맺음말

I. 머리말

동학농민운동의 핵심적인 구심점은 ‘동학’ 사상이다. 19세기 최제우는 당시 혼란한 조선의 사회상을 목도하고 불안한 현실 속 모순과 문제들을 극복하려 전국을 유랑하며 일종의 ‘종교체험’을 통해 도(道)를 깨우치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정리 및 체계화하며 ‘동학’²⁹⁾을 창시하였다.

1894년 전라도 고부의 동학 접주 전봉준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동학교도들과 농민들이 합세하여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다.

1894년 2월의 조병갑의 횡포와 고부농민봉기의 성공, 안핵사³⁰⁾ 이용태의 탄압과 4월의 전주성 점령과 전주화약, 이 과정에서 동학농민운동의 반봉건 성격이 폐정개혁안과 집강소 설치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 9월의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및 고종의 연금으로 일어난 제2차 농민운동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대표적 성격이 배경과 전개 속 표면적으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예비교원을 꿈꾸는 필자는 미래의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역사 선생님께서 전문적인 지식보다 역사적 사건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역사교육을 전공하며 교육받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사건 속 인과관계 혹은 종종 나아가 논자 스스로 사건에 대한 견해를 가져보거나 ‘if’를 붙이면서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즐기곤 하였다. 이러한 이해의 과정 속에서 역사교사를 목표로 하는 예비 교원으로서 논자는 ‘동학농민혁명’과 ‘동학농민봉기’란 용어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학술적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학농민운동 과정 속에서 농민군들의 봉기 성격 및 태도를 동·서양 역사 속에서 나타난 혁명과 봉기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동학농민운동’은 혁명인지, 봉기인지 성격과 사례를 비교하며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작성하였다.

II. 동학, 동학농민군의 성격

1. 반외세 및 반봉건적 요소

현재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은 보편적으로 ‘반봉건’과 ‘반외세’로 규정되었다. 동학이 최제우에 의해 창시되고, 1864년 교조 최제우가 처형당한 이후 최제우의 신원(伸冤) 확보와 동학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병란(兵亂)의 형태³¹⁾로 일어난 1871년 제1차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1876년 동학 최초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삼례집회로 대표되는 제2차 교조신원운동과 1893년 서울에서의 복합상소인 제3차 교조신원운동, 마지막으로

29) 용어의 개념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사실이나, 최제우가 동학 자체에 대한 용어 사용과 창시 목적을 서학, 그 중 천주교 종교적 차원으로 억제하고 조선의 전통적인 종교관인 성리학, 유교 사상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창시하였다고 뚜렷이 말하기는 어렵다.

30) 안핵사(按察使) 조선 후기에, 지방에서 발생한 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 벼슬.

31) 이필제의 난을 말하며, 1863년 동학에 입교한 이필제와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과 함께 봉기한 사건이다. 동학 최초의 교조신원운동과 반봉건투쟁의 성격으로 일반 민란과는 성격을 달리하며 광범위한 인원동원과, 야습을 통한 강한 저항력을 보여주며 18세기 말 전반적 농민봉기의 맹아(萌芽)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합법적 절차 대신 대중적 시위운동으로 방법을 바꾼 제4차 교조신원운동, 이후 동학 농민운동까지 19세기 말 격동의 동북아시아를 잘 보여주듯 동학과 동학농민군들의 대외 인식이나 태도는 상당히 역동적이다.

1864년 최제우가 ‘혹세무민(惑世誣民)’ 죄명을 받아 처형당한 뒤 동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동학을 괴멸 상태로 만들었고, 동학의 성격 또한, 교조신원운동 이전 1860년 최제우가 동학을 창시한 당시 동학의 초기 성격과는 다르게 교조신원운동 시기 동학은 서학과 서양을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서양과 서학에 대한 적대심과 차별점을 강조하였고 오히려 조선 사회 속 유교와의 공통성을 강조하며 호국과 외세에 대한 배격을 구호로 내세웠다.³²⁾ 나름의 타협을 택하면서 동학 자체의 종교적 인정을 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동학과 동학교도들에 대해 동학 자체는 서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겼고, 이를 믿는 교도들 또한, 황건적과 백련교와 같이 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집단으로 인식³³⁾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학에 대한 인식은 유교 지식인들에게도 흡사³⁴⁾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상주, 우산서원과 도남서원 등 동학을 배척하는 통문의 내용이다.

“술책은 분명 서학인데 근본은 바꾸지 않고 이름만 바꾼” 것, “동학은 서학의 명목을 다시 이어가는”, “무당의 하나로 귀신에게 비는 자들”

즉, 교조신원시기의 동학의 성격과 인식은 교조의 처형과 정부의 탄압을 겪으면서 ‘반봉건’ 성격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으나 제2대 교주 최시형은 동학의 인정과 교세 확장을 추구하며 당시 조선 사회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혁명, 기포(起包)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였고, 동학과 동학교단 자체의 안정과 인정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최시형의 태도는 교조신원운동 시기의 동학이 기포(起包)와는 아직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조 시기 기존의 동학과는 차이³⁵⁾가 있으며 그 성격 또한, 정부의 탄압에 대응하여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93년 전봉준이 삼례집회를 계기로 입지가 넓어지며 이전의 최시형이 추구하던 동학의 성격 또한, 변화하는데 제4차 교조신원운동이 무위로 돌아가자 동학 지도층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신원 운동을 포기하고, 대중적 시위운동으로 방법을 전화하였다. 1893년 3월 10일 최시형 등 동학 지도부는 이같은 방침을 승인하고, 전국의 교도

32) 「고부민란의 연구」(上·下) 한국사연구 李離和, 박찬승, 1993, 「1892, 1893년 동학교도의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배향섭, 1995

33) 최제우가 체포·처형된 것도 동학이 서학과 다른없는 좌도(左道, 그릇된 사상)라는 죄목이었다. 高宗實錄 권1, 高宗 1年 3月 2日 ; 日省錄, 高宗 1年 3月 2日 ; 「嶺上日記」 동학농민전쟁사료총서(1996, 동학농민전쟁백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편)

34) 표영삼, 2004, 동학 1 : 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35) 최제우는 자신이 창도한 도를 서학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동학으로 명명하면서도 사실은 서학과 서양을 적대적일 정도로 배척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서학과 일본 상인의 상행위에 대한 폐해에 대한 반대가 제2차 교조신원운동, 공주집회에서 보이기는 하나 주요내용은 아니었다. 그러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탄압이 심해지며 동학교단은 서학과는 차별성을, 유교와는 공통점을 강조하였다. 「1892, 1893년 동학교도의 ‘신원’운동과 ‘척왜양’운동」 배향섭, 1995

들에게 보은 장내리에 집합할 것을 명하는 통유문(通諭文)을 보냈다.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의 교도가 모인 가운데 열린 보은집회에서는 ‘척왜양창의(斥倭洋倡義)’의 정치적 기치를 내걸었다. 이 시기부터 ‘반봉건’ ‘반외세’ 성격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며 동학의 성격은 이전의 동학교단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롭게 합세한 농민운동 지도자들의 성격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³⁶⁾ 이는 동학농민운동 시기의 북접과 남접 농민군의 비교로 확인되는데, 남접의 지도자 전봉준과 손화중은 척왜를 구호로 기포하였으나 최시형을 중심으로하는 북접은 종교적 입장을 고수하며 무력항쟁에 가담하기를 꺼렸다. 특히 제2차 동학농민운동 시기, 최시형을 비롯한 교단은 신입도인의 증가로 혼탁해진 동학의 계통과 위계질서, 봉기과정 중 발생하는 여러 비행들을 경계하는 지침 등을 강력한 내용의 통유문³⁷⁾으로 각지에 보냈으나 당시의 동학교도들은 더 이상 교도와 농민군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동학교도들이 동학농민군으로 변모하던 시기였고, 상황상 최시형의 통유문은 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 동학농민군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결국 최시형은 동학이 동학농민운동 뿐만 아니라 각지 여러 민란의 명분으로 사용되는 것을 느끼고 전봉준에게 농민군을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는 수용되지 않았고, 동학 지도부는 전봉준을 비롯한 봉기 주도자들을 역적이라 표현³⁸⁾하며 불쾌감과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봉건’ ‘반외세’ 정신은 확실히 확인된다. 남접과 북접으로 갈등을 맺고 있어도 전봉준은 제1차 동학농민운동 시기 제시한 폐정개혁안에서 그의 ‘반봉건’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고, ‘반외세’ 정신 또한, 제2차 동학농민운동 시기 척왜를 부르짖으며 봉기한 동기로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최시형 또한, 동학 자체의 인본주의를 강조하며 ‘반봉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전봉준과 대립하던 와중에도 항일구국투쟁(抗日救國鬪爭)의 명분으로 남북접 동학농민군을 형성하며 ‘반외세’의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같이 동학의 지도부는 태도와 사상이 서로 다르긴 하였으나, ‘반외세’ ‘반봉건’ 정신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전봉준과 최시형의 남접과 북접은 그 지도부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동학과, 농민군은 같은 ‘반외세’ ‘반봉건’ 정신이라 하여도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봉기의 참여자들까지 그들 하나하나의 참여는 과연 ‘반외세’ ‘반봉건’의 의미가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남긴다.

물론 동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외세와 반봉건의 성격은 동학이 농민층들에게 쉽게 녹아들며 빠르게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인 동시에 조정과 유교 지식들에게 탄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다. 하지만 동학의 지도자들, 최제우와 최시형 그리고 전봉준까지 동학의 성격은 짧은 기간 속에서 주요한 지도자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였다.

36) 1894년 농민군의 무장봉기를 최시형을 비롯한 동학교단은 승인하지 않았으며, 특히 남접농민군이 전라도 일대에서 봉기하며 일으킨 여러 비행들을 걱정하며 봉기를 막으려 하였으나 충청도와 경상도까지 번지며 교단의 영향력은 떨어지고 동학교도들이 동학농민군으로 그 성격을 전환해가는 시기였다. 『동학사』(오지영, 영창서관, 1940)

37) <시천교종역사>(《총서》29), <歲藏年錄>(《갑오이후일기》).

38) 『동학사』(오지영, 영창서관, 1940)

2. 동·서양 혁명과 봉기에 대한 비교·분석

동학농민운동의 성격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기 위해 대표적인 동서양의 농민봉기와 함께 비교해보려고 한다. 비교 대상 역사적 사건은 태평천국운동과 와트타일러의 난이다. 두 개의 사건을 동학농민운동과 비교하고자 한 이유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동·서양 혁명과 봉기에 대한 비교·분석 개요

사건	시기	피해	주체	비교 및 분석
동학농민운동	1894년	약 6,000명	농민	-
태평천국운동	1851년	약 3,000만 명	농민	농민층과의 관계
와트타일러의 난	1381년	최소 1,500명 이상	농민	반봉건

1) 태평천국운동

먼저, 태평천국운동을 알아보려고 한다. 동학농민운동과 태평천국운동의 공통점은 첫째,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전개된 전국적으로 전개된 큰 규모의 운동이었다는 점, 둘째, 양국 근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였던 점이다. 이는 양국의 봉건통치체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역사적 측면에서 두 사건의 발생 배경은 다음과 설명과 같다. 왕조의 부패와 수탈에 견디지 못하고 봉기한 것으로 당시 공동의 상황이었다. 양자의 주체 역시 농민층으로 같다. 동학농민운동에서는 교도들과 농민군이었으나, 사실상 농민이 주체로 동학 지도자들이 농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농민의 이익에 관한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대표적으로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에서의 노비 문서 소각, 토지 평균 분작(分作), 세금 폐지 등, 운동의 성격은 처음부터 끝까지 농민의 이익을 위해 일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동학농민운동에 있어서 농민층은 시작과 끝까지 동학의 교도이자 농민군으로서 동학과 함께하였다. 태평천국운동의 주체도 동일하게 농민세력이며 태평천국 정권 수립 초기 단계에서도 지지기반이 되어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천경(天京)³⁹⁾에서 정도 후, 지도자 계층의 타락으로 농민층의 지지를 얻지 못하며 이는 결국 태평천국의 실패의 큰 원인이 되었다, 결국 동학의 지도층은 농민 세력의 중요성을 알고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강소를 설치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제출하고 소통하며 일본군과 관군에게 진압되고 해산되는 당시까지 뜻을 같이하였으나, 태평천국의 경우는 초기에는 농민층을 위해 봉사하고 소통하였으나 후기에 지도층과 농민층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주요 세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실패하였다.

양자의 대외인식 또한,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동학농민운동의

39) 현재 중국의 난징을 말한다.

경우 1893년대 초 일본 및 서양 공사관에 격문을 게시하며 배척운동을 벌이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천주교 신도도 여럿 있었다는 기록⁴⁰⁾도 있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천주교도나 신부를 살해한 사례는 없다.⁴¹⁾ 동학농민군의 서학에 대한 태도는 당시 황해도 장연에서 선교활동을하던 매켄지(William J. McKenzie) 선교사의 경험⁴²⁾으로 자세히 알 수 있는데, 그는 “동학농민군은 무식하고 부도덕한 자들, 공산주의자들 같다”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지만 “동학농민군들이 낡은 구습과 케케묵은 폐습 타파의 효시(嚆矢)라고 믿어집니다”라고 동학농민군들의 반봉건 정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후 매켄지는 1895년 기포드 신부에게 “서양 사람들은 그들(동학농민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태평천국운동 시기 선교사들의 기록은 대체로 긍정적이지 않다.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 목사가 상하이에서 선교하는 것을 허가받았다는 사실이 런던선교회에 전해지며,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 1860년 영국 감리회 선교사 콕스는 간왕 홍인간의 초청으로 선교를 위해 난징에 왔으나 자요로운 선교활동이 불가능하자 실망하며 떠났고, 미국해외선교국의 윌리엄스는 1864년 “나는 이번 반역(태평천국운동)이 진리를 확대시키는 도구가 되리라고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홍수전에게 성경을 가르친 미국 침례회 로버트(Issachar J. Roberts) 목사는 외교대신에 봉해졌으나 이를 고사하고, 1861년 1월까지 천경에 머물렀던 그는 크게 실망하여 떠났는데,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글을 남겼다.⁴³⁾

“이곳의 일은 상반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생략) 밝은 면은 우상숭배, 매음, 도박이 없고 비도덕적인 것이 용납되지 않는 소극적인 측면의 것들이다. 그러나 나는 천왕(홍수전)은 미쳤다고 생각한다. 특히 종교에 있어서 그렇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어린 구세주라 부르고 자신을 예수의 친동생이라고 자칭한다. (생략) 나는 그들에게 정부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가 나를 이리로 부른 것은 나로 하여금 외국인들을 포섭하기 위함이다. (생략) 선교사들이 성공하리라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나는 그들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홍수전, 배상제회, 태평천국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할 때 물론 좋은 점도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지만 수많은 단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수전은 봉건사상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으며, 결국 태평천국은 종교를 빙자한 전제폭정이었다. 따라서 선교사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영국의 장군 고든(Charles George Gordon)

40) 논문 속 자료에서는 ‘동학 입도 강요와 고문’ ‘농민군의 공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등을 다루고 있고 경상도에서 농민군의 매질로 인해 죽은 천주교 신도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긴 하지만 1894년 동학농민군이 아닌 일반 민란 농민군으로 보고 있다. 조광, 2003, 「19세기 후반 서학과 동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41) 충청도 광정 일대에서 쵸조 신부가 청군과 농민군에게 체포되어 처형된 사례가 있지만, 그를 처형한 것은 청 장군 섭지초의 부하들이었으며, 이때 프랑스 신부와 함께 그를 수행하던 조선인 마부도 함께 참수되었다. 김진소, 1998, 「천주교 전주교구사」

42) 이영호, (2011). 황해도 동학농민군과 기독교 선교사의 접촉과 소통. 한국기독교와 역사

43) 미국 침례교 해외 선교사 협회 기록 보관소, Issachar J. Roberts, 논문 및 서신

이 상승군(常勝軍)을 이끌고 청군을 도와 진압에 참여하며, 여기에 태평천국의 실책과 중국 전통문화를 보존하자는 중국번 정귀판(曾國藩)의 호소까지 더해지며 태평천국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과 태평천국운동을 비교해볼 때 봉기하는 과정 속 피해와 규모 자체는 압도적으로 태평천국운동이 크지만, 두 사례의 가장 큰 차이인 농민층의 지지를 주목하여 보면 동학농민운동은 집강소 조직과 자체 행정으로 조직력과 민주주의성이 돋보이는 반면, 태평천국운동은 농민층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과 당시 지도자 홍수전(洪秀全)에게 홍인간(洪仁玕)이 제시한 정치강령 자정신편(資政新篇)이 태평천국의 근대화 성격에 영향을 미치긴 하였으나 실행되지 못하였고, 이는 어디까지나 지도부들 사이에서 제출한 것이고 농민층과의 소통은 사실상 부재하였다. 이를 보아 논자는 태평천국운동보다 동학농민운동이 근대적이라 말한다.

2) 와트 타일러의 난

동학농민운동과 와트 타일러의 난 비교 분석은 반봉건적 요소에 대한 재검토 차원에서 비교 대상을 삼았다.

두 사례 모두 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와트 타일러의 난은 1381년에 부과된 인두세(人頭稅)에 대한 경제적 불만과 “아담이 밭을 갈고 이브가 베를 짜던 때에는 누가 귀족이었던가?”라는 존 볼(John Ball)의 설교에 고무되어 촉발되었는데, 이때 일어난 반란군은 최고 10만 명에 가까우며 영국 최초의 대규모 민중 반란이었다. 반란군은 런던으로 진격하여 플랑드르 상인들을 학살하고 원성의 대상이었던 랭카스터의 공작 곤트의 존(John of Gaunt, 1st Duke of Lancaster)의 저택을 파괴하며 런던을 점령한 후 대주교와 재무상을 비롯한 관리들과 외국인을 다수 살해하였으며, 정부는 할 수 없이 개혁을 약속하고 해산하라고 설득하였고, 이 과정에서 타일러는 살해되었다. 이후 6월 경 지방의 반란군까지 진압하면서 마침내 반란은 끝나게 되었다. 반란의 기간은 1개월 내외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고 사회혁명이라는 면에서 볼 때 실패였고, 리처드 2세의 개혁 약속은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반란 이후 영국의 농노는 점차 해방되어 자유 농민이 되었으며, 그 결과 장원제의 붕괴는 가속화되었고 영주들은 약체화되어 영국의 절대주의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

동학농민운동은 태평천국운동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인을 제외한 서양인과 천주교 신부 및 기독교 선교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위의 와트 타일러의 난과는 매우 대조적인데, 타일러의 반란군들은 런던을 점령했을 당시 외국인을 살해하고 이들의 수급을 장대에 꽂아 도시를 돌아다니다가 런던브리지 정문에 매달아놓는 잔혹한 폭력성을 드러내었다.⁴⁴⁾ 물론 동학농민운동 시기 동학농민군이 일본군과의 전투는 물론, 일본인 소유 미곡 압수 등 일본군을 물론이고 일본인 민간인에 대해서도 매우 공격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⁴⁵⁾ 이는 일본군이 조선을 침략

44) J. F. C. Harrison, 1984, The Common People: A History from the Norman Conquest to the Present, London: Collins, pp.90~92

45) 이영호,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2004)

하고 농민군을 가혹하게 진압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 동학농민운동의 계기 및 구호 또한, ‘척왜’가 가장 주된 구호로 다뤄졌고, 일본군에게 가혹하게 진압당하는 동학농민군의 입장에서 일본인 민간인에게 행해진 폭력은 동학농민운동을 직접 참여하고 겪으며 생기게 된 일종의 적개심이나 ‘르상티망(Ressentiment)’⁴⁶⁾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사례의 상반되는 태도이다. 와트 타일러의 난과 동학농민운동 모두 농민층을 주체로 피해한 민생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농민봉기인데, 수많은 농민군들이 목숨을 걸고 일어나 ‘반란’을 전개하고 있던 격동의 시기에, 자국의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 취하는 농민군의 태도는 양 사례가 매우 상반된다. 물론 동학농민운동 시기 자행된 군청과 민가, 그리고 민간인을 상대로 한 약탈과 협박, 겁탈 그리고 입교 강요까지 여러 비행들이 행해진 것은 사실이다.⁴⁷⁾ 이는 제2차 동학농민운동 시기 입교하는 새로운 교도들의 수가 많아지며 농민군의 행동이 혼탁해지며 나온 결과이다. 이에 최시형은 통유문과 ‘금석지전(金石之典)’을 반포하며 이를 금지하였다.⁴⁸⁾ 전봉준 또한, 제1차 동민농민운동 초창기 발표한 행동강령을 재확인하며 비행을 지양하였다. 하지만 와트 타일러의 난 과정에서의 민중운동 주체, 농민군의 인명살상과 집단적 학살(genocide)은 간단없이 발발하였다.⁴⁹⁾

반봉건에 대한 태도 또한, 대조된다. 와트 타일러의 난에 참여한 농민군의 수는 10만 명으로 14세기 흑사병으로 감소한 영국 런던의 인구는 5만 명 수준으로 영국 전역이 와트 타일러의 난에 휩싸였다. 하지만 런던까지 접수했던 농민군은 결국 국왕의 존재를 인정하고 해산하였고, 잔혹한 저항과 민란만을 남기며 반봉건을 위한 봉기로서는 완전한 실패였다. 런던을 접수한 농민군은 별다른 장치 없이 국왕과 농노제 폐지를 비롯한 약속으로 해산한다는 협상은 안일한 선택이었고 온건파의 농민군은 해산하였고, 남아있던 강경파 농민군들도 타일러의 죽음과 국왕 리처드 2세의 일갈로 순순히 해산하였다. 이러한 농민군의 해산은 리처드 2세의 영리한 대처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전 리처드의 대처는, 농민군들을 비롯한 사회 분위기 속 국왕에 대한 인정이 남아있었기에 가능하였다.⁵⁰⁾

46) 영어인 Resentment (원한)의 프랑스어이다. 니체는 이를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 질투심으로 자신의 나약함을 합리화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심리학적으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제의 한 방식을 말한다.

47) 황현, 오하기문(梧下記聞)

48) 경상도 예천에서 위에서 말한 금석지전의 지침을 따른 실례가 확인된다. 8월 11일 수접주 최맹순이 유천접주 조성길을 읍내에 동도 10여 명을 보내 지주 이유태에게 보복 구타한 사실을 기록한 罪案과 함께 읍내에 압송한 것이다. 동학농민군과 읍내의 민보군이 극단의 대치상태에 있었던 때의 일이었다. 교주 최시형의 지침은 교단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하부 조직에서 이처럼 존중되었다.

49) 알렉산더 우드사이드는 “유교사상이 팽배했던 아시아에서는 (가톨릭과 위그노가 서로 이단시하고 학살과 방화를 일삼으며 프랑스 전역을 피로 물들였던) 위그노 전쟁과 같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다. 간혹 국가가 일방적으로 불교를 탄압한 경우는 있었을지라도 (9세기 중국 또는 15세기 한국이 그러했듯이), 유럽만큼 규모가 큰 성전(聖戰)이나 종교심문이 자행되지는 않았다. 성 바르톨로뮤의 학살사태처럼 대중이 직접 이단자를 척결하겠다고 나서는 일도 중국과 한국, 베트남 역사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하였다.

50) “너희는 농노이며, 앞으로도 여전히 농노일 것이다.”란 사료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시 리처드 2세가 농민군들에게 말하였다는 설화로 전해진다.

Ⅲ. 동학농민운동 혁명인가? 봉기인가?

1. 혁명과 봉기의 개념

논자는 결론인 ‘동학농민운동’의 용어 재검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혁명과 봉기의 용어 구별을 정확히 하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서, 두 용어의 사전적 개념 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역사 속 봉기와 혁명의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며 결론을 시작하려고 한다.

먼저, 혁명(革命)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의 기초, 사회,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이나 이전의 관습 및 제도, 방식을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일을 말한다. 유의어로는 개혁과 정변, 쿠데타가 있다. 혁명이 쓰이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은 산업혁명·시민혁명이 있다. 이 두 사건에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현대 사회에 자본주의·민주주의라는 변혁 및 성과를 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한 산업혁명·시민혁명을 비롯한 많은 역사 속 혁명들은 항상 혁명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결국 혁명의 용어는 관점이 서로 다른 무수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수많은 의견으로 정의될 수 있고, 수많은 타당성 문제가 제기되는 용어이다. 이 점 역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타당성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봉기(蜂起)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세력이 벌 떼처럼 떼 지어 세차게 일어난 것을 말한다. 동학농민운동에서는 고유한 단어로 기포(起包)⁵¹⁾의 용어가 존재한다. 유의어로는 궤기, 난, 반기 등으로 관점에 따라 여러 뜻으로 변할 수 있다. 여기서 논자는 난(亂)과 봉기의 개념 차이는 구분하지 않는다.⁵²⁾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들은 임술농민봉기(또는 임술민란), 흥경래의 난이 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무력 충돌과 과정 중 발생하는 내부의 문제들, 그리고 결과적으로 관군의 진압과 봉기 실패가 있다. 물론 민란(民亂)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서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인식이 강하며, 봉기는 역사학계에서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사용한다.

논자는 결국 혁명과 봉기(또는 난)의 차이는 대의명분과 봉기 과정 속 민중들의 인식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존재하겠지만, 가장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의 성공 여부라고 생각한다.

2. 동학농민운동의 명칭들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용어는 갑오농민전쟁, 동학란, 동학혁명, 동학 폭동⁵³⁾ 등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 아래 <표 2>는 우리나라 교과서 속 동학농민운동의 명칭 변경 과정이다. <표 2>에 의하면,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만들어지긴 하였으나 논란은

51) 동학 농민 운동 때 농민 등이 동학의 조직인 포(包)를 중심으로 하여 봉기(蜂起)하던 일.

52) 논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세세하게 뜻을 따지자면 봉기는 저항세력의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표현이고, 난(亂)은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보는 표현이다.

53) 북한에서는 갑오농민폭동, 동학 폭동이라고도 불린다.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학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성격 규정에 있어서 ‘봉기’가 아니고, 반봉건, 반외세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혁명’ 또는 ‘혁명운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다수이다.⁵⁴⁾

<표 2> 우리나라 중고등 역사 교과서 속 동학농민운동의 명칭 변경 과정

출판년도	교과서명	명칭
1949년판	중등사회과 『우리나라 역사』	동학난
1956년판	고등학교 사회과 『국사』	동학난
1965년판	중학교 사회생활과 『중등국사』	동학난
	인문계 고등학교 『국사』	동학혁명
1970년판	고등학교 『국사』	동학혁명운동
1974년판 (1975년판)	중학교 『국사』	동학혁명
	중학교 『국사』	동학혁명운동
1979년판	고등학교 『국사』	동학농민혁명운동
1982년판	중·고등학교 『국사』	동학운동
1990년판	중·고등학교 『국사』	동학농민운동
1996년판 (1997년판)	중·고등학교 『국사』	동학농민운동
2015년판	중·고등학교 『한국사』	동학농민운동(현재)
* 일제시대에는 ‘동학당의 난’, ‘동학난’으로 칭함		

IV. 맺음말

논자는 역사인식은 시대와의 상호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과거 사건의 당사자들과 기록으로 그들을 보는 현재의 우리, 그리고 더욱 넓어진 관점으로 과거와 현재의 우리를 볼 수 있는 미래의 사람들을 생각하며, 역사는 항상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자는 명칭 결론의 기준으로 2가지의 기준을 정하였다. 첫 번째는 그들이 과연 의병인가? 두 번째는 그들의 창의는 정당한가? 이다.

첫 번째 물음의 답은 그들은 의병이 아니었다. 그들이 내세운 ‘보국안민’은 척왜를 계기로 일어난 2차 봉기에서 사실상 ‘안민’의 정신은 사라지게 되었고, 국난의 시기 유림의 민보군(民堡軍)⁵⁵⁾과 대척점에 서며 지배층의 입장에서 농민군의 창의는 작란(作亂)이며 역적이었다.⁵⁶⁾ 결국, ‘보국’의 목표 또한, 근대식 무기를 갖춘 일본군에게

54) 논란이 되었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2018년 11월 9일에 매년 5월 11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55) 19세기 후반 외세 침략을 방어할 목적으로 구상된 민간의 자위 체제이자,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지방 양반층과 향리층이 결성한 민간 군대 조직이다. 지방의 보수 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향촌 사회의 기존 지배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

짓밟히면서 이루지 못하였다. 창 의 목적은 농민군들이 의병으로 불릴 수 있는 대의이 었지만, 봉기 과정과 봉기의 결과는 혁명으로 결코 불릴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 물음의 답은 창 의는 정당하다. 당시의 조선 사회는 한 마디로 ‘파국(破局)’ 이었다. 그 파국의 지점 속 동학과 농민군들은 동학과 전봉준의 호소는 민중에게 있 어서 공명(共鳴)한다. 피폐한 민중들에게 있어 동학과 봉기는 ‘서면 백산 앞으면 죽 산’ 말처럼 자의적이든 강제적이든 유일한 공동체였다. 의로운, 외로운 봉기를 지속하 며 농민군들은 그들 나름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즉, 농민군 개개인의 삶 을 위한 투쟁이었고, 동학농민들이 동학농민군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었다.

정리하자면 동학농민운동은 19세기 혼란스러운 조선 사회에 대한 피폐했던 농민 개 개인의 저항이자 투쟁이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운동의 다양한 명칭 속 혁명을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56) 전라도 고창의 유생 李圭彩가 1894년 12월 작성했던 「舉義事實」에는 “동도들의 작란”으로 인하여 유자들이 붓을 던지고 “창 의”하였고, 이들을 “유생들로 구성된 병사”들 즉 “儒兵”으로 지칭한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역사넷

- 배항섭. (2023). 동학과 동학농민군의 대외인식.
김경호. (2021). 동학, 미완의 혁명과 엇갈린 공감의 그늘.
이영호. (2011). 황해도 동학농민군과 기독교 선교사의 접촉과 소통.
이영호. (2004). 『동학과 농민전쟁』 (혜안, 2004)
표영삼. (2004). 동학 1 : 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조광. (2003). 「19세기 후반 서학과 동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신용하, 이이화, 정석종. (1985). 한국민중운동사자료대계

동학 농민 운동에서 활약한 전봉준, 국가유공자가 아닐까?

조단일 (역사교육과 2학년)

- 목 차 -

I. 서론

II. 본론

1.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및 의의
2. 국가유공자법의 내용과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
3. 전봉준은 국가유공자 선정이 애매한 이유
4. 동학 농민 운동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III. 결론

I. 서론

일제강점기 때 조국을 위해 힘쓰셨던 분들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나라를 위해 힘쓰신 분들에 대해 찾아보던 중, 조국을 위해 힘쓰신 분들에게 수상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봉준은 동학 농민 운동의 큰 핵심이자 지도자였다. 그러나 전봉준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봉준이 어떠한 이유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의문점이 든 본 연구자는 이번 의문점을 해소하고자 이를 주제로 선정하였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국가유공자를 예로 들자면, 안중근 의사가 있다. 분명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시킨 안중근 의사는 국가보훈처에서 인정받은 인물이자 국가유공자이다. 동학 농민 운동은 개항 이후에 농민들을 위해서 개선점을 타파하려고 한 단순 농민 봉기로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반봉건”, “반외세”적인 봉기라는 점에서 다른 농민 봉기와는 다르다. 그렇다면 동학 농민 운동을 알아보며,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끈 전봉준 역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며 우리는 또한 동학 농민 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동학 농민 운동의 전개 및 의의

동학 농민 운동은 1894년(고종 31) 전라도 고부의 동학접주⁵⁷⁾ 전봉준(全琫準) 등을 지도자로 동학교도와 농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농민운동이다. 우선 동학은 1860년 최제우에 의해 창시하는데,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봉건사회를 반대하고 서학과 왜를 배척하는 반외세 사상을 주장하면서 점차 그 교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조선의 위정자들은 동학을 사교로 금지하고 1864년에는 교조 최제우를 흑세무민⁵⁸⁾의 죄로 처형하는 등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동학 제2대 교주 최시형에 의해 동학은 농민들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조직화됐고, 이후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제우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동학교도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교조신원운동⁵⁹⁾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교조신원운동 이후에도 정부의 묵살은 계속됐고 여기에 전라도 군수 조병갑의 불법 착취와 동학교도 탄압에 대한 고부 농민과 백성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동학교도들은 1894년 1월 전봉준을 중심으로 전라도·충청도 일대 농민들을 모아 고부 관아를 습격해 고부민란(古阜民亂)을 일으켰다. 관아를 점령한 전봉준은 정부에 조병갑의 횡포를 시정할 것과 외국 상인의 침투를 금지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정부로부터 폐정을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10여 일 만에 해산하였다. 그러나 고부민란을 조사하러 온 안핵사 이용

57) 동학에서 접(接)의 우두머리.

58) 感世誣民,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임. 즉, 그릇된 이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행위 전반을 의미한다.

59) 1864년에 처형된 동학의 창시자 최제우의 억울함을 풀고, 포교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 1892년에 동학 교도들이 벌인 운동.

태는 오히려 민란 관련자들을 역적죄로 몰아 혹독하게 탄압하였다. 이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서 동학 농민 운동은 크게 네 단계로 전개되었다.

제1기는, 고부 민란의 시기로서,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와 착취에 항거하여, 전봉준이 1천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관아를 습격하여 군수를 내쫓고, 아전들을 징벌한 뒤 곡식을 농민들에게 나눠 주고 10여일 만에 해산하였다.

제2기는 동학 농민 운동의 절정기로서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등의 지도하에 동학 농민군이 보국 안민(輔國安民)⁶⁰과 제폭 구민(除暴救民)⁶¹의 기치를 내걸었던 시기이다. 동학 농민군은 고부와 태인에서 봉기하여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치고, 정읍, 고창, 함평, 장성 등을 공략한 다음 전주를 점령하였다.

폐정 개혁 12조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 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富豪)⁶²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儒林)⁶³과 양반의 무리를 정벌한다.
5. 노비 문서(奴婢文書)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平涼笠)은 없앤다.
7. 청상 과부(靑孀寡婦)⁶⁴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 채용에는 지별(地閥)⁶⁵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1.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分作)⁶⁶한다.

〈오지영의 ‘동학사’〉

제3기는, 동학 농민군이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하여, 그들이 제시한 폐정 개혁안을 실천에 옮긴 시기이다. 전주 화약이 맺어졌으나, 정부는 동학 농민군의 개혁 요구를 받아들여 실천할 의지가 없었다. 또, 정부는 동학 농민군을 무력으로 진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청이 파병하게 되자, 일본도 텐진 조약을 구실로 삼아 조선에 군대를 보내고, 결국에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제4기는 청·일 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내정 간섭을 강화하자, 이에 대항하여 대규모의 동학 농민군이 다시 일어난 시기이다. 동학 농민군은 논산에 집결했다가

60) 나랏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
 61) 포악한 것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원함.
 62) 재산이 넉넉하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의 한자어.
 63) 유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를 말한다. 주로 조선시대의 사대부층을 일컫는다.
 64) 나이가 젊었을 때 남편을 여윈 여자. 나이 젊은 과부를 뜻의 한자어.
 65) 대대로 조정에서 높은 지위를 누린 문벌(門閥)을 뜻한다.
 66) 한 떼기의 논밭을 서로 나누어 농사를 지음.

공주의 우금치⁶⁷⁾에서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으나,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패하여 큰 희생을 치렀으며, 전봉준 등 지도자가 체포됨으로써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를 통해 동학 농민 운동은 반봉건적, 반외세적인 봉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국가유공자법 내용과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

국가유공자의 뜻을 먼저 알아보자면,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분류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있다.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또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

전몰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이다(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 포함한다).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 포함)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적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이다.

순직군경⁶⁸⁾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중 사망한 자이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는 국가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자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이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전봉준 또한 앞서 설명한 국가유공자의 조건에서 부합만 한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전에 전봉준이 유공자가 되려면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에 대해서 짚고 넘어 봐야한다.

동학 농민 운동의 순서는 고부민란-1차봉기(반봉건운동)-전주화약-2차 봉기(반외세 운동)으로 볼 수 있다. 1차 봉기는 단순히 조선 정부와 동학 농민군의 한 나라 차원에 이뤄진 봉기여서 농민군들과 정부 사이에 합의로 인해 끝난 봉기였다. 하지만 2차 봉기는 1차 봉기와 다르게 지배층들의 횡포에 불만을 품은 농민들이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닌 전주 화약이 체결 이후에도 청과 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며 일본은

67) 1894년 11월 동학농민군이 공주의 우금치에서 관군 및 일본군과 치른 전투.

68)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

경복궁을 기습하면서 외세를 몰아내자는 의미로 전봉준을 필주로 한 동학농민군이 다시 모여서 결국에는 4000여 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봉기를 다시 일으킨 것이 2차 봉기이다. 유명한 전투로는 우금치 전투가 있고, 총 공격을 하였지만, 결국에는 조선, 일본 연합군의 승리로 농민군은 패배하여 동학 농민 운동이 실패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2차 봉기는 일본군과 맞써 싸운 항일 민족 전쟁을 했다는 것이 맞다.

따라서 동학 농민 전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제국주의 세력 매우 거부를 하였다. 또 한국 동학 농민 혁명으로 인해서 항일전쟁 중 민족의식은 강해졌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고로 동학 농민 운동은 반일 운동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3. 전봉준은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기 애매한 이유

동학 농민 운동의 성격이 항일 운동이자, 반일 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본 연구자는 정의하였다. 그러면 전봉준이 선정될 만한 국가유공자의 타이틀은 2가지로 순국열사나 애국지사라고 생각하였다. 순국열사와 애국지사 두 개 다 일제에 대한 국권 침탈에 대해서 반대하여서 순국하거나 그 공로를 인정받으면 전봉준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봉준은 국가유공자로 선정이 되는데는 논란이 없다.

하지만 역사학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거대한 항일 운동은 맞지만, 그것이 자주독립 해방투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학 농민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조선의 국권이 버젓이 살아있을 때였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이란 국가나 민족이 타국이나 이 민족에게 주권을 강탈당해 피식민지에 처해 있을 때 독립권을 주장, 쟁취하는 운동을 말한다. 따라서 동학 농민 운동은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의문을 제기 할 수도 있다. 일제에 대한 국권 침탈에 대해서 반대하여서 순국한 안중근 의사 또한 버젓이 대한제국이라는 국권이 살아있을 때인데 어떻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것일까?

그것은 보훈부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었다. 보훈부의 서훈 내규에 따르면 '독립운동은 1895년 을미사변부터 시작이지만, 동학 농민 운동은 그보다 1년 전이다.' 말하고 있다. 독립운동 시초의 기준점이 1895년 을미사변 때를 기준으로 잡는다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것은 1909년 10월 26일이기 때문에 시기상 독립운동으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안중근 의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전봉준은 항일 운동의 성격을 띤 동학 농민 운동을 이끌어서 일본군, 외세를 물리치려고 했던 인물은 맞으나, 동학 농민 운동이 독립운동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보훈부에서 독립운동 시초의 기준점이 동학 농민 운동의 1년후인 1895년이라는 점에서 전봉준이 국가유공자로는 선정되기 애매하다.

4. 동학농민운동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

동학 농민 운동은 그저 단순한 농민 봉기가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키면서 우리는 동학 농민 운동을 바라봐야한다. 초창기에 벌어지던 산발적인 농민 봉기가 이후 조직적인 농민 전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나라 역사에서 가장 규모가 큰 농민 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동학 농민 운동은 노비 문서 소각 및 토지의 평균 분작을 요구하는 등 봉건적인 지배 체제에 반대하여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후에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봉건 질서의 붕괴를 촉진하여 조선이 근대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본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반외세, 반침략 민족 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 후 잔여 세력이 을미 의병에 가담하기도 하였으며 활빈당, 영학당 등 농민 무장 결사 단체를 조직하여 반봉건, 반침략 투쟁을 계승하였다.

이것은 이후에 벌어질 의병 투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본 동학 농민 운동은 명백한 항일 운동이자, 나라를 위한 조선시대의 마지막 농민 혁명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Ⅲ. 결론

전봉준이 기준이 모호하여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있었다. 특히 동학 농민 운동이 항일 운동은 맞으나, 독립 운동으로 보기에선 목적상 그리고 시기상으로 어긋난다는 것을 보며, 매우 아쉽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욱 더 동학 농민 운동, 혁명에 관심을 기울이고, 알리는 활동을 한다면, 국가보훈부의 입장도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하나이다. 본 연구자는 동학 농민 운동이 3.1 운동의 뿌리라고 생각하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학생들이 자세히 알아야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1. 서적 및 논문

- 1) <<동학농민혁명사일지>>
- 2) 「宗理院史附東學史」
- 3) 한국민족독립운동사
- 4) 김규희, (2016) <RISS 김규희- 한국사 교과서 '동학 농민 운동'의 민주적 가치 내용분석>
- 5) 김진복, (2003) 동학 농민군 봉기에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 = Leader's Role in Donghak Peasants' Uprising
- 6) 오제연, (2018)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3.1운동 기억': 4.19혁명에서 6월항쟁까지

2. 사이트

- 1) 우리역사넷 <http://contents.history.go.kr/front>
- 2) 국가보훈처 <https://www.mpva.go.kr/mpva/index.do>